

은 紋樣이 없는 素朴性을 나타낸 角形의 花崗石으로 嵌入하여 두었다. 龕室 內部側數는 高九〇cm 橫六五cm로서 內部全面에 石灰로 발라 元來의 狀態를 알 수 없다. 縣洞塔과 比較해 볼 때 塔身과 龕室이 前者는 正方形인데 對해 後者는 高에 比해 幅이 넓다.

第一屋蓋石은 現幅이 約三·二m이고 落水面과 받침 部分은 모두 階段式으로 쌓아 올렸으며 屋蓋에 蒼瓦한 痕跡에 對해서는 알 수 없었다. 現在 全體高는 約八m程度로 全面에 덩굴이 덮혀 上部의 調査는 못하였으나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다.

三、三池洞 模搏石塔 및 出土佛像

英陽邑에서 盈德行 道路를 열마간 따라가면 縣洞塔앞을 흐르는 河川과 마주친다. 여기서 河川을 따라 約一km 올라가면 下立洞部落에 다다른다. 여기서 다시 山모퉁이로 돌아 五〇〇m가량 가면 三池洞部落에 이르고 塔은 이部落 뒷산 傾斜가 急한 山中腹에 突出한 自然岩石위에 세워졌으며 現在 二層만이 遺存한다. 屋蓋위에는 石造露盤과 相輪이 남아 있다. 自然岩石의 露出高는 二·九m 二위에 塔身을 받치기 爲해 平平한 板石을 깔았으며 第一塔身의 規格은 高가 一一·八cm 幅이 一三·六cm로서 第一屋蓋部分의 最大幅은 二m이다. 落水面과 받침部分은 亦是 前記二基의 塔과 같이 階段式이다. 第一塔身 南쪽面에 龕室이 마련되어 있다. 現在의 全體高가 約四m程度이며 元來는 三層이었으리라 생각되며 重修時에 石材不足으로 二層으로 縮少된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의 것도 昨年에 庵子建立과 더불어 若干 修理하였다 한다. 昨年 修理途中 龕室의 바닥을 整理하다가 埋沒되어 있었던 小佛像 六軀를 發見하였다 하며 그중 二軀는 다시 龕室바닥에 넣어서 石灰로 封해 버렸고 他四軀는 庵子法堂에 모셔 두고 있다. 搬出된 佛像은 모두 二段으로 된 圓形臺座위에 立佛로 鑄造한 것이며 全體高는 各各 四·七cm, 四·五cm, 三·六cm, 三·三cm이다. 諸佛像의 表面은 모두 美麗치 못하나 造形手法上的 재미나는 것도 있다. 四軀中 二軀는 光背가 있는데 하나는 透彫로 된 火炎紋光背이고 또 하나는 船形金銅板에다 綠邊에 放射線狀의 線을 押入하여 葉模樣을 나타내고 있었다.

佛像은 모두 厚肉의 肉髻가 있고 個中에는 法衣紋이 圓形나타낸 것도 있으며 手印等 全體的 外觀으로 볼 때 古形을 엿보이게 하는 것도 있는 無計劃的으로 個人的 手に 依해 發掘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埋藏狀態는 알 길이 없다.

以上 英陽郡內에서 三基의 模搏塔을 比較해 보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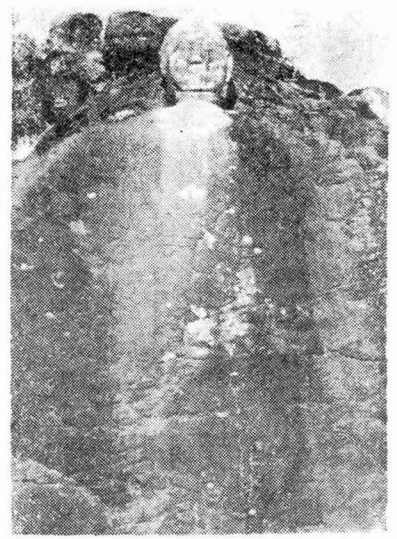
- ① 모두 같은 河川流域에 가까이 있다는 것.
- ② 奉甘과 三池의 第一塔身은 高보다 幅이 넓고 縣洞塔은 正方形이라 는 두種類가 있다.
- ③ 龕室은 完全히 調査를 못하였으나 모두 第一塔身의 한 側面에만 있다.
- ④ 材料는 모두 石質로서 搏模樣으로 다듬어 使用했다는 것.

이와 같은 樣式的 模搏石塔이 五km以內의 圈內에 密集해 있는 것으로 볼 때 安東地方에 密集해 있는 搏塔과 比較하여 交通上 가까운 地域에 있다는 것을 一考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即 政治·文化的인 面에서 볼 때 交通路와 相通하는 것이 아닐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곳의 模搏石塔은 樣式論上으로 볼 때 搏塔造成의 次代에 들어야 할 것이며 安東搏塔의 技法을 繼承한 것으로 볼 수 있는 點에서 年代는 모두 新羅統一로 推定된다.

公州 鷄龍山磨崖佛像

金 永 培

鷄龍山 新元寺에서 新都內로가는 山길을 따라 約四km쯤 南進하면 上峯에서 南쪽으로 뻗어내린 山脈이 急傾斜를 이루고 이一帶에는 巨岩絶壁들이 층층이 솟아 있다. 山中턱을 싸고도는 草路를 따라가면 眼前에 용추고개라고 부르는 險峻한 고개가 나서는 데 이 길은 新元寺에서 新都內로가는 아주 險한 길이어서 좀처럼 人跡이 드문 곳이다. 이 용추고개를 半



쯤 올라가다가 左便
으로約五〇m쯤되
는곳에 巨岩들이 즐
비하게 솟아 있는데
그중 한 바위에 磨崖
佛이 彫刻되어 있다.
이 바위는 幅이 約
六m 高가 約八m
쯤되는 獨立된 巨岩
으로 天然的으로 다

丹陽 香山里 三層石塔

鄭 永 鎬

忠北 丹陽邑에서 約十六km되는 佳谷面 香山里 部落 발가운데 三層石塔
一基가 遺存하여 지난 八月九日 調査하였다. 花崗石材로 全高四m인 바
二層基壇위에 놓인 方形塔으로서 相輪部까지 거의 完全하다. 數枚의 長
大石으로 地盤을 마련한 위에 五枚石으로 된 地臺石과 그 위 基壇을 놓았
다. 下基面石은 四枚로 「자임」은 通式이며 四枚式으로 된 下·甲石上面에
는 一段물딩과 角形받침으로서 上層基壇을 받고 있다. 上基面石은 一
이 二枚씩으로서 全八枚인데 자임은 通式이며 二枚石으로 構成된 上甲石
에는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물딩과 角形의 괴임을 마련하여 그 위에 塔身
을 받고 있다. 上·下基各面은 一柱의 撐柱로써 二區로 區分되었고 兩隅
柱도 整然히 刻出되었는데 이러한 撐柱等 基壇의 諸構造樣式은 年代推定
의 貴重한 資料라 할 것이다. 基壇部外의 屋身과 屋蓋石은 各 一石인 바
屋身에는 隅柱가 있으며 初層南面의 中央下部에는 (陰刻한 二重額內에)
幅二六cm, 縱四〇
cm의 門扉가 模刻되
었는데 이것은 다시
그 中央의 陰刻單線
으로 兩分되었다.
(幅十三cm) 屋蓋
石은 받침이 四段씩
이고 層마다 上面에
二段의 角形 괴임으
로서 그 上層의 屋
身을 받고 있다. 相



듬어진 岩面에 正南向하여 線彫로서 佛身을 彫刻하고 佛頭는 別石으로
彫成하여 嵌었는데 最上端에 肩部를 表現하고 佛頭를 嵌었으나 全體의
均衡이 조미롭게 어울리고 있다. 頭像은 後面을 扁平하게 다듬어서 뒤에
있는 바위에 附着시켜서 遙動되지 않게 마련되었으며 螺髮에 肉髻가 크
고 白毫는 없고 눈은 가볍게 감았으며 목에는 三道가 있고 面相은 좀
기른 便이며 謹嚴한 面貌를 보이고 있다. 法衣는 어깨에 걸쳐 길게 느
러 드리었으며 裙衣는 臍下에서 圓弧를 그리며 足部에까지 이르렀고 胸
前에는 衣帶를 매듭하여 두개의 고를내서 左右로 展開하였고 手印은 左
手는 胸前에 들어 內掌하였고 右手는 自然스럽게 느려서 內掌한 듯하나
손끝 部分이 磨滅이甚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保存은 良好한 便인데 발
部分이 좀 磨滅이甚할 뿐이다. 彫刻의 手法은 古拙簡古한데 素樸한 衣
紋과 溫厚한 相好가 깊어 印象에 남았다. 이 佛像바로 옆에 單間斗屋이
있고 老婆가 起居하며 佛像앞에는 돌로써 壇을 모으고 茶器供養을 하고
있어서 草童들의 侵害를 防止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다. 鷄龍山은 佛敎
의 靈地로서 甲寺 新元寺 東鶴寺 等의 大伽藍을 비롯하여 群小의 庵子
가 散在하여 있으나 佛敎造形은 稀少한 便이다. 甲寺附近에 石佛二軀가
遺存할 뿐이었는데 새로 調査된 이 磨崖佛은 鷄龍山佛蹟研究의 좋은 資
料가 될가하여 紹介하여 둔다. 實測值**
總高六m 一〇cm, 頭高一m 三〇cm, 胸幅一m 八六cm, 身長八九cm